

박재완의 포도 색즉시공

부처의 숲

누군가는 돌에서 부처를 찾아내고, 새들은 돌과 부처 사이를 난다. 그렇게 새들이 죄를 씻고, 바람은 돌과 부처 사이에서 피안의 풍경을 본다.

죄를 씻은 새들이 돌과 부처 사이에 집을 짓고, 피안의 풍경을 바라본 바람은 돌과 부처 사이에 꽃을 심는다.

누군가 돌에서 부처를 찾아내던 날에 돌과 부처 사이엔 새들의 집들이 늘고, 바람의 꽃밭이 커져만 간다.

저녁 햇살에 부처의 주름이 깊어간다.

글 · 사진=박재완 사진작가



문경 대승사마애여래좌상(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39호). 머리에 연꽃 모양을 새긴 독특한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승한 스님의 **좋아좋아** 행복코칭

'보감사관' 명상

모든 인간관계는 2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좋은 것(+)을 주고받거나 나쁜 것(-)을 주거나 받는 관계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도 있듯, 내가 먼저 좋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나쁜 말로 응답하지 않는다. 또한 내가 나쁜 말(욕)을 했는데 상대방이 좋은 말로 응답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나와 상대방 사이에 플러스(+)적인 것을 주고 받는 일은 하면 할수록 좋다. 문제는 마이너스(-)적인 것을 주고받을 때이다. 마이너스적인 것을 주고받다보면 안으로는 점차 고통이 쌓인다 마침내 그것이 폭발하면 싸움이 되고 만다.

나의 스승인 용타 큰스님은 이것을 '보감사관(보시·감사·사과·관용)' 명상이라고 했다. '보감사관' 명상은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 반드시 필요한 삶의 덕목이다.

내가 상대방에게 베푸는 것을 보시라 한다. 베푸는 것은 평화와 행복의 밑거름이다. 말, 표정, 선물, 재물 그 어떤 것이든 좋은 마음으로 주는 건 다 +적인 베풀(보시)이다.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았는데 감사한 마음이 안 들리었다. 정신 이상자가 아닌 한 마이너스적인 것으로 응답하진 않는다.

그렇게 상대방이 베푼 좋은 것에 대해 좋은 마음으로 응답하는 것, 그것이 감사다. 그것은 또한 준 상대방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니, 나도 모르게 나 또한 상대방에게 다시 기쁨과 행복을 선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보시는 받는 상대방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나를 먼저 기쁘게 한다. 그것이 보시의 가장 큰 매력이자 본질이기도 하다. 나와 너의 관계가 항상 이 같은 보시와 감사의 관계로 이루어진다면 모든 인간관계는 평화롭고 행복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서로 (-)적인 것을 주고받을 때이다. 내가 먼저 욕을 했는데 상대방이 '아이고, 아무개야, 욕해줘서 고마워'라며 환하게 웃으며 대답할 리 만무하다. 특별한 성자(聖者)가 아니면 대부분 속이 부글부글 끓거나 더 심한 욕으로 응대하기 마련이다. 그러다보면 점점 난투극으로 이어지고, 끝내는 1·2차 세계대전 같은 '관계전쟁'으로 번지고 만다. 잠시 멈췄다 해도 언제 또다시 폭발할지 모르는 관계전쟁, 즉 휴전이다.

관계전쟁을 끝내는 길은 오직 '사과'와 '관용'밖에 없다. (-)적인 것을 준 사람이 먼저 사과하고 나서는 것이 제일로 좋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고,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듯, 웃는 얼굴로 먼저 사과하고 나서는데 거기다 대고 더 나쁜 말로 욕하고 폭력을 휘두를 사람은 없다.

하지만 나쁜 말을 한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지 않는다고 내가 계속 지옥에 살 필요는 없다. 내가 먼저 관용을 해버리면 상대방은 계속 지옥을 살아도 나는 대번에 천국을 살 수 있다.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계속 그곳에 머무는 사람만 손해다. 그런 지옥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다.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사과를 해버리면 상대방이 나를 이해

먼저 베풀고 사랑하면 그곳이 '극락'

악(惡)을 악으로 대응해선 안 돼

먼저 사과할 때 지옥 벗어나

가까울수록 항상 보시·감사해야

받는 이 보다 주는 이가 행복

“

베풀고 감사할 때

존경과 인정 따라온다

”

하고 용서하든 말든 나는 내가 만든 지옥에서 벗어나 평상심을 되찾을 수 있다.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적인 것을 받아 내 마음이 지옥일 때도 상대방이 사과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관용을 해버리면 상대방을 계속 지옥을 살아가도 내 마음은 단박에 행복모드를 바꾼다. 신기한 것은 상대방이 사과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관용을 해버리면 오히려 상대방이 더 미안해하며 용서와 잘못을 뵈는 것이다.

절집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사서하기도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 때부터 사과와 관용은 수행의 커다란 줄기였다. 자자(自恣)가 그것이다. 안거(安居; 승려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외출하지 않고 한곳에 머무르면서 수행하는 것. 우리나라에는 여름철 석 달 동안 하는 하안거와 겨울철 석 달 동안 하는 동안거가 있음)가 끝나는 날 온 대중들이 모여 함께 사는 동안 자신이 잘못했던 점을 스스로 밝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무려나 결례를 하는 등 -적인 것을 준 것에 대해 스스로 먼저 진심으로 사과함으로써 잘못을 닦고 참회하는 것을 말한다.

대인관계를 하면서 이 같은 자자정(自恣)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잘못이나 허물을 스스로 먼저 묻고 고백하고 사과하는 것을 수시로 하면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관계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 오히려 늘 자자정을 하고 사는 사람은 높은 인품의 소유자가 돼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는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가족관계도 마찬가지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일수록 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

구가 크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부부와 부모 자식 사이일수록 먼저 베풀고 감사하고 사과하고 관용하는 일이 잘 안 된다. 너무 가깝기 때문일까? 오산이다. 가까울수록 '보감사관' 명상을 더 해야 한다. 내 가족, 내 가정부터 천국으로 만들지 못하는데 세상 어디 가서 천국을 만들고 낙원을 건설하겠는가. 내 가족부터 먼저 사랑하고, 베풀고, 감사하고, 사과하고, 관용할 때 그 에너지는 동심원을 그리며 점점 넓어질 수 있다. 그러면 비로소 내 이웃, 내 국가, 전 지구촌으로 아름다운 파문을 그리며 번져나갈 것이다.

'보감사관' 명상 가운데서도 가장 큰 공덕은 보시명상이다. 보시(베풀) 명상은 우리 가족과 우리 사회는 물론 전 인류를 행복과 화합으로 이끈다. 육바라밀(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지혜) 가운데 보시가 으뜸으로 나오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보시만 잘하고 살아도 나머지 5가지 바라밀은 저절로 따라온다.

보시는 특히 나의 욕심(탐욕)을 녹여낼 뿐만 아니라, 구세군 멤버처럼 우리 사회에 따뜻함과 우호감을 더해준다. 또한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기 전에 나부터 기쁘게 해준다. 주는 것은 나인데 더 행복해지는 것도 바로 나인 것이다.

기부왕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마크 주커버그처럼 베풀기를 좋아하면 커다란 탐도 따라온다. 주위 사람들로 부터 저절로 사랑과 인정과 존경을 받는 것이다. 바라지도 않는데 사랑받고 싶은 욕구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한꺼번에 채워지는 것이다. 그 첫 출발점은 가정이다. 가족부터다.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국내유일의 에밀레종 풍탁

고즈넉한 산사, 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 1. 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 2.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 3.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 4. 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 규격 및 가격
[소] 85 × 65 × 135mm 15만원
[중] 110 × 80 × 160mm 20만원
[대] 140 × 95 × 200mm 25만원

■ 재질 : 청동

판매처

- 구입문의 : 현불삼 02)2004-8213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여 가방에 담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장엄괘불

- 괘불 크기 : 가로 200cm × 세로 300cm
- 구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 (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판매처

- 구입문의 : 현불삼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